

다산포럼

스스로 모욕한 후에 남이 모욕한다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망가뜨린 후에 남이 망가뜨린다.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진 후에 남이 진다.”(夫人必自侮，然後人侮之；家必自毀，而後人毀之；國必自伐，而後人伐之.)

‘맹자’의 이루어(離婁) 상(上)편에 있는 구절이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기자회견을 보는데 이 구절이 떠올랐다.

일본의 무성의보다 우리 외교부의 태도가 더 무제였다. ‘위안부’ 할머니는 외교부 제1차관에게 “일본 외교부예요?”라고 물었다. “나라가 없어,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씩 죽이려 하는 거예요?”라며 울먹었다. 합의했다는 내

용에 보통 사람도 모멸감을 느꼈으니, 당사자 할머니야 오죽했겠는가.

‘위안부’ 할머니가 구술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식민지 소녀의 끔찍한 경험에 읽기가 매우 불편했다. 친절히 대해 준 일본 군의관에게 그녀가 연민을 느꼈다는 대목에선 울컥했다. 그녀는 감성 어린 젊은 여자였다. 그 청춘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었는가.

얼렁뚱땅 돈으로 종결하려는 처사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청춘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인격까지 죽이는 것이다. 이걸 해결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나라의 위정자가 스스로 민초를 모욕하고 나라를 모욕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가해와 피해, 일본과의 악연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과거사로 끝나길 누가 바라지 않을까. 그러나 최근 일본의 행태는 과거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태도에서 영토적 야심이 확인되고, ‘위안부’와 ‘소녀상’ 발언에서 다시 과거의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우려하게 했다.

고향에선 작했음 ‘이치로’ 일명병을 맞 할 것인가, 일본 군국주의를 탓할 것인가. 나라를 잃었던 탓이다. 일본이 다시 전쟁

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맹자는 우리에게 스스로 나라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황교안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다”고 답해서 야당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정부 동의를 없으면 일본 자위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라며 동의 요건을 강조했다. 동의란 게 대단한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120여 년 전 외국군의 침탈은 우리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고종과 조정은 임오(1882) 군사반란과 갑오년(1894) 동학 농민을 진압하기 위해 중국 군대를 불러들인 바 있다. 일본군의 침탈도 그네들의 조약에 따른 자동 연계로, 또는 우리 위정자의 동의를 갖추어 이뤄졌다.

위안부 문제로 곤경에 빠진 정부를 또 북한 이슈가 구하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강행하고,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과 의존은 다른 여지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갈수록 궁색하다. 정부와 여당은 북핵에 관해서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가당한 것인가.

주변국들은 북핵을 비판하지만 이중적

이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일본은 재무장을 합리화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미-일-한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 양쪽에서 몸값을 올리고 있다. 어느 나라도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우리와 꼭 일치할 수 없다. 물론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북한에 관여할 여지를 넓히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은 알려지고 있다. 120년 전에 중국도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조선책략’을 통해 조선에게 일본과 동맹을 맺도록 권유하여 조야의 반발을 시기도 했다. 이이제이(夷虜) 발상이었다. 지금 미국의 요구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현명한 것일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능사일까. 우리의 이익과 조화시킬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남이 우리를 쉽게 업신여길 수 없으며, 설혹 업신여긴다 해도 크게 문제될 바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남이 우리를 쉽게 침범할 수 없으며, 설혹 우리를 침범한다 해도 미구에 물리칠 수 있다. 자중자애하고, 모든 인간에게 예의를 갖춰보면 좋겠다.

기 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본격적 개화를 바란다



임 향 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지난해 11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마침내 개관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2년 만에 (구)전남도청 터에서 아시아를 품어 안고 세계를 향해 그 문을 활짝 연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했던 광주의 역사적 정신을 소통과 상생의 문화로 승화시키고, 문화를 통해 아시아가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 시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어느덧 13년차에 들어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된다. 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크게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산된 문화 에너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또 하나의 중심축인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생명을 불어 넣는 등 도시의 문화적 자생력을 높이고, 광주 문화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전당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방대한 공간 규모와 시설을 갖췄지만 당초 목표대로 아시아와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여 국내외 관객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를 바라는 지역의 과도한 요구는 성급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비판론과 관심의 저하로 이어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지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성원 없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도 명백하다. 장이 서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일 리 없는 것처럼, 지역민들이 먼저 사랑해주고 방문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면 국내외 해외의 관람객들이 찾을 리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시와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협력이다. 방대한 전시·공연 시설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에 전당을 폭넓게 개방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어야만 지역민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아울러 광주 비엔날레,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등 이미 자리 잡은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7대 문화권 사업은 도시 내 핵심 기능별 문화권을 설정하여 도시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집중되다 보니 7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고 광주시와 지역 언론, 정치권도 정부 지원 필요성만을 역설할 뿐 사업 성공을 위한 자구노력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간의 7대 문화권 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와 사업인 대인시장 및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5년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고지원의 한계와 광주시의 취약한 재정능력 탓에 7대 문화권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경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에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배려하려고 하고 정치적 절충을 우선하다 보면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투입된 자원이 성과를 내지 못하기 십상이다. 그간 12년의 사업기간이 경과했지만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광주의 지역정서가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지역 정치권과 언론, 문화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 여론이 고양되고 있다. 본시 문화와 예술은 정의와 열정을 먹고 성장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 개화를 기대해 보는 이유다.

社 說

노모 모시던 어느 효자의 안타까운 죽음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종영됐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출생의 비밀도 없고 불륜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약속을 취소하고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 들었다. 모처럼 따뜻한 드라마였다.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마지막 회 역시 19%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상파 드라마를 능가하는 엄청난 사랑이었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도 많았지만, 딸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울던 성동일의 연기는 압권이었다. 친구들과의 우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사랑을 돌아보게 만드는 착한 드라마였다.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의 판타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현실에서는 노모를 편안히 모시려던 어느 착한 효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시골 집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해 삼한 자루를 들고 날이 새도록 지하수 관정을 파던 40대 아들이 흉구덩이에 매몰돼

숨진 것이다. 엇그제 화순군 춘양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광주에 사는 조 모(49) 씨는 16일 아내(47)와 함께 지난해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어머니(75) 집을 찾아 지붕을 손보는 등 집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던 중 마당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시원치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오후 1시부터 삼한 자루에 의지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작업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마당 텃밭과 비닐하우스 채소를 재배하는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오로지 그런 일념에서였다.

경찰은 지하수 관정을 파던 조 씨가 흉터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삼한 자루에 의지해 날이 새도록 흙을 파냈겠느냐”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드라마 속 장면보다 더 우리를 울린다.

장기결석 신고 의무 중·고생까지 확대해야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4년 가까이 장기결석을 한 초등생이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엽기적인 소식이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시 읍·면·동장에게 통보해 왔다. 이때 부모가 출석 독려를 무시하면 담임교사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실종 신고를 할 수 없어 학교 측은 어느 손쓸 방법이 없었다. 또 교사는 문제 학생이 발견되더라도 자택을 직접 찾아 실태를 살필 수 없는 한계도 노출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키로 하고 올해 1학기 시작 전까지 시행령 개정과 함께 통합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의무교육 관련법상 초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의무제는 중·고교 장기결석 학생에게까지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중·고교생활의 경우 장기결석할 경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생이 ‘7일 이상 결석’을 해야 학교장이 독촉장을 보내던 현행 규정을 ‘즉시 또는 2~3일’로 줄이고,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 학생이 장기결석하더라도 담임교사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막거나 출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그때(1980년대)로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거든.” “누구?” “젊고, 태산 같았던 부모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의 마지막 회에서 어른이 된 덕선과 태이 나누는 대화다. 덕선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 시절이 그리운 건, 그 골목이 그리운 건 단지 지금보다 젊은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곳에 아빠의 청춘이, 엄마의 청춘이, 친구들의 청춘이,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청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응팔은 4050 세대가 비롯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였다. 그때로 떠난 시간여행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요즘 폐쇄적인 아파트 거주문화에서 맛볼 수 없는 이웃 간의 따뜻한 정(情)과 가족애(愛) 등 공동체 정신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각 가족마다 고민을 안고 있지만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다섯 가족의 부모와 자식들이 펼쳐 나가는 삶의 이야기에겐 서민들의 회로애락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었다. 쌍문동 10동2반 봉황당 골목

다섯 가족의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잃어 버리고 사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했다. 마지막 회의 높은 시청률(19.6%)은 모든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기자 역시 ‘응팔’을 즐겨 보면서 드라마 속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래서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크게 우리 딸이 쫓겨 버쥬”라고 말하는 덕선 아빠나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는 태이 아빠 모습에 공감했고, 마지막 회 선우 보라의 결혼식 후 아빠와 딸의 편지글에서도 울컥했다. 30여 년이 흘러 부모 세대가 된 딸이 부모모 “젊고, 태산 같았던”으로 묘사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다.

응팔이 인기를 끌며 복고(復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패션·음악·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 복고는 집체된 경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좋았던 옛 시절’을 추억하며 현재의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공동체가 흔들리고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된 요즘, 응팔의 뜨거운 인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응팔’ 신드롬

서재, 세상을 말하다

김한태의 자이열재(自怡悅齋)



박 철 상
문화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중국 남북조시대에 도홍경(陶弘景)이란 인물이 있었다. 본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17세에 제(齊)나라 조정에 들어간 이래 20년 동안 벼슬살이를 했지만, 제나라가 망하고 양(梁)나라가 들어서자 37세의 나이에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비록 관직에서는 물러나 있었지만 세속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양나라 무제(武帝)는 엄격한 법률로 백성들을 억누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자하고 급진한 척하였다.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신봉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도홍경은 자신의 제자를 궁에 들여보내 무제에게 칼 두 자루를

바치게 했다.

하나는 이름이 ‘희승(喜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승(成勝)’이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도홍경이 자신에게 보내준 지지에 감동한 무제는 자신의 뜻을 담아 글을 지어 보냈다. “산속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죠? 고개 위의 저 많은 흰 구름이죠. 저 혼자만 즐겨워 할 수 있을 뿐, 그대에게 드릴 순 없답니다.”

무제는 도홍경이 무엇 때문에 속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궁금하였다. 이 시는 무제의 궁중중에 대한 답변이었다. 내가 이 산속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고개 마루의 구름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구름을 바라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임금이 그것에 즐거움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나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

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남에게 줄 수 없는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즐거움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 다녀야 하겠습니까?

도홍경의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제의 구애는 계속되었다. 한 번은 무제가 보낸 사람에게 그림을 한 폭 그려 보냈었다. 그림을 펼치자 물소 두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한 마리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다니며 풀을 뜯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금으로 된 멍에를 두르고 있었다. 도홍경은 세상일에 구속받기 싫어하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며 무제의 청을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다. 이 뒤로 무제는 도홍경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사람을 보내 자문을 구하곤 하였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를 ‘산속에 사는 재상’이란 뜻으로 ‘산중재상(山中宰相)’이라 부르게 되었다. 도홍경의 이야기는 역대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의 시나 서화 의 소재가 되었다. 도홍경의 의취를 모방하여 서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조 때의 통역관 김한태가 자신의 서재를 ‘자이열재’라 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다. 김한태는 자신의 서재를 꾸미기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다. 중국 문사들의 글씨와 시,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 사신이 갈 때마다 사람을 보냈다. 연경의 문사들이 시문을 보내오면 자이열재에는 조선의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함께 감상하며 시를 짓고 담론을 나누며 기뻐했던 것이다.

김한태는 ‘자이열재’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혼자서만 즐기며 남에게는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당신에게도 있는나고 말이다. 임금의 부름도 거절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나고 말이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한갓 위선일 뿐이라고 말이다. 세태를 바라보며 도홍경의 ‘흰 구름’을 떠올리는 것이 나만의 사치는 아닐 것이다. 자이열재는 나를 위한 서재이자, 우리를 위한 서재이다. 우리시대의 ‘자이열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해에는 하늘의 흰 구름만 보아도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삶에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